

PC-II-1. Root Coverage With Connective Tissue Grafts : An Evaluation of Long-Term Results

배상렬*, 박진우, 서조영, 이개묵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여러가지 수술적 방법들이 노출된 협측 치근면 피개를 위해 제안되어왔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외과적 치근피개술이 사용된 술식 종류와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만족할 만한 치근피개를 얻기 위한 생물학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Wennström, 1994; Zucchelli, 1998).

치근피개가 심미적인 목적이라면 완전한 치근면 피개(CEJ까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완전한 치근피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치은의 두께, 색깔, 주위조직과의 혼화 등이 환자의 심미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De Sanctis et al, 1996).

그러나 환자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심미성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는 결과의 유지와 안정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은퇴축을 다양한 상피하 결합조직이식술로 치료 후 임상적 결과의 장기적 (1년 이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상,하 소구치와 전치부에서 Miller Class I 또는 II 치은 퇴축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피하 결합조직이식술을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증례에서 술전, 술후 임상적 평가(변연치은 퇴축 양, 치주낭 깊이, 임상 부착 수준, 각화치은의 양)를 시행하여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피하 결합조직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치은퇴축의 감소와 임상 부착 획득, 그리고 상당한 각화치은 높이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치근 피개술은 깊은 치주낭을 형성 시키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시술시 적절한 치근 피개는 1년 이상의 관찰 기간 동안 양호한 치주임상지수 변화를 보였다.